



## "하나님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영어로 된 북미 원주민판 성경을 보면, 천국을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길”이라고 의역하고 회개를 그 길을 따라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카메룬 타운젠트는 모든 민족 안에 이 하나님나라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함을 깨닫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위대한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지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을 위한 비행 선교 사역과 필요한 비행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카메룬 타운젠트는 에스아이엘(SIL, 1936), 위클리프성경번역 선교회 (1941), 잘스(JAARS, 1948) 등을 차례로 설립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허망한 생각을 할 줄 알았습니다.”

타운젠트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나면 그걸 이뤄 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과 함께 읽는

##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10/1	10/2	10/3	10/4	10/5	10/6	10/7
말 1-4	마 1-4	마 5-6	마 7-9	마 10-12	마 13-14	마 15-16

그리고 문이 열리기를 민감하게 기다렸다가, 열렸을 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p. 47, 103, *Into the Glory*, by Jamie Buckingham)

1926년부터 선교를 위한 비행 사역을 꿈꾸기 시작했고, 1929년 각치켈 신약성경 번역을 마친 다음부터 그 꿈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도 성경 번역 사역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람도 재원도 없었고, 심지어는 대공황이 미국을 덮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꿈을 이뤄주시기까지 2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한번은 비행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사고를 안전한 비행 사역의 필요를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해서 사고 현장을 담게 한 것입니다. 1948년 페루에서 잘스(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 사역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웨소 시로 그 본부를 옮겼습니다.

1960년 대부터 아마존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DC-3 수송기를 우여곡절 끝에 얻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미 공군에서 퇴역하는 이 비행기를 사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격 제안을 하며 구매 경쟁이 붙었지만, 후에 잘스 대표 및 성경없는 부족 위한 기도 운동을 벌였던, 당시의 파일럿 버니 메이는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입찰을 감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6 개월 만에 현금이 모아져 비행기 대금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초과 모금액으로 페루에서의 사역에 맞게 비행기를 개조할 수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운젠트의 뒤를 이은 잘스와 많은 자매 단체 지도자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했고, 그 결과 지금 세계에서 섬기고 있는 잘스의 비행기들과 선박들과 여러 육상 운송 수단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하나님나라를 위한 여정을 떠나도록, 현지인들도 그 여정에 참여하도록,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 복된 길을 열어주고 그들도 주님을 따라나서게 돕는, 저희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 "Pursuing God's Kingdom & Righteousness"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In the First Nations Version of the English Bible, heaven is paraphrased as "God's good road from above" and repentance is translated as "change your thinking and begin your great journey."

Cameron Townsend was a man who realized that this Kingdom of God must be proclaimed among all peoples, that people must experience that heavenly life, and who devoted his entire life to seeking that Kingdom and its righteousness. And God provided him with everything necessary for that great journey. A prime example of this was the provision of air missionary work for missionaries entering remote areas and the necessary aircraft.

Cameron Townsend, founder of the SIL (1936), Wycliffe Bible Translators (1941), and JAARS (1948), was a visionary as well. He marched against impossibilities never saying can't. But he was also able to "discern between a wild idea and a vision from God."

One of the Cameron Townsend's secrets of answered prayer was patience. Once a prayer was prayed, he left it alone. He didn't rush out and try

##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Oct 1	Oct 2	Oct 3	Oct 4	Oct 5	Oct 6	Oct 7
Mal 1-4	Mat 1-4	Mat 5-6	Mat 7-9	Mat 10-12	Mat 13-14	Mat 15-16

to bring it to pass. He believed that if a thing was of God, God would open the doors. His job is to be quick and alert to sense when the door swung open, and to step inside before it closed again. (p. 47, 103, *Into the Glory*, by Jamie Buckingham)

Uncle Cam kept this vision of a missionary aviation program from 1926 and began to share it with others in 1929 after he finished the Cakchiquel New Testament translation. He believed that would make Bible translation works possible even in the Amazonian area. No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available at that time and there was the great depression going on in the US. But he waited over 20 years to see God make his dream come true.

When his leg was broken and he was bleeding from a plane crash, even at that moment he thought of using this tragedy to promote a safe aviation program. He asked to bring a camera to take the crash scene and share the need for an aviation program, after he made it sure his wife and their daughter were safe. JAARS ministries started in Peru in 1948 and they moved to the present base in Waxhaw, North Carolina in 1968.

The acquisition of the DC-3 transport aircraft, which

had served extensively in the Amazon since the 1960s, was also a miracle from Go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When JAARS sought to purchase this aircraft being retired from the US Air Force, many people made offers and a bidding war ensued. However, Bernie May, who later became the president of JAARS and led the Bibleless People Groups Prayer (BPPP), the prayer movement for nations without the Bible, boldly placed a bid by faith despite having no money at all. By God's grace, donations were collected within six months, enabling us to pay for the aircraft. In fact, the excess funds raised even allowed for modifications to the aircraft to suit the ministry in Peru.

Like Townsend, the leaders of JAARS and other sister organizations who followed him were also people who sought God's kingdom and righteousness. They continued to pray and seek until doors opened by God's grace, and as a result, JAARS now has aircrafts, ships, and various land transportation means serving around the world. They serve as hands and feet to enable missionaries to embark on journeys for God's kingdom to regions otherwise inaccessible, and to allow local people to participate in those journeys.



**Wk 46:** Lord, grant us a blessed life: that we may seek Your kingdom and righteousness with pure motives and fervent passion, opening this blessed path to many and helping them too to follow You.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Weekly Prayers for  
Bible Translation